

## IV. 日本 動靜

首都 移轉 構想이  
‘社會 改革’ 및 戰  
後 최장기 불황  
탈출구로 여론화

### 구체화되는 首都 移轉 構想

- 社會 改革 및 不況 脫出의 ‘히든 카드’
  - 고베 大地震으로 과도한 東京 集中의 危險에 관한 재인식과 ‘不成不況’의 長期化에 대한 획기적인 內需 擴大 방안으로 최근 首都 移轉 構想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
  - 규제 완화·지방 분권·수도 이전의 ‘三位一體’가 21세기를 대비한 日本 시스템 개조의 대전제라는 인식임
- ‘國會調查會’의 제2차 보고서 概要
  - 작년 6월 首都 移轉의 意義 및 效果에 관한 제1차 보고서 이후 1 년만에 美國 와싱턴을 모델로 한 ‘國會都市’로 이전 대상의 범위, 이전 수순, 新수도 건설상의 제반 문제가 보고됨
  - 이전 장소 기준, 이전 시기 및 이전後의 東京 整備에 관한 문제는 내년 제3차 보고서에서 검토될 예정임  
(「朝日新聞」 7.17)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일  
본기업은 「엔화  
결제화」보다는 오히려  
해외생산에서 ‘제조  
코스트의 달러화’를 지향  
함

### 가속되는 脫「엔화 결제」

- 의외로 부진한 「엔화 결제화」
  - 아시아의 「엔 블러화」 전략 일환으로 지금까지 엔고 대응책으로 일본기업에게 수출 대금의 엔화 결제가 적극 장려되어 왔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기업의 엔화 결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93년 3월 42.8%(최고치) → 39.7%(현재)
- 「제조 코스트의 달러화」를 지향하는 日本企業
  - 기업 입장에서는 엔화 결제는 단기적으로 환리스크가 輸入側에 전가될 뿐,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유지와는 무관함
  - 오히려 해외 생산·부품조달의 확대를 통해 製造 코스트의 달러화 비율을 높임으로써, 첫째 환리스크를 줄이고, 둘째 값싼 부품 조달로 경쟁력을 확보함  
(「週刊東洋經濟」 7.20)

최근 급격히 진행  
되는 北·日 수교  
교섭은 양국 정권  
안정 차원보다는  
국제사회의 균형  
및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조급할 필요없는 對북한 修交

#### ○ 너무 서두르는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對북한 쌀지원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적극 추진하려 함
- 이는 취약한 現 연립 정권의 '逆轉 카드'로서의 의도  
가 내재되어 있음
  - 연립 여당의 '新3당 합의서'에 對북한 수교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고, 김일성 사망 1주년 추도  
메세지에 '修交 早期 實現'을 공식 요청함

#### ○ 北韓의 불신 해소를 위한 可視的 조치가 선결과제

- 핵개발 의혹 및 테러 지원국가라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적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성급한 수교는 바람직하  
지 않음
- 수교 문제는 양국의 정권 안정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  
의 균형 및 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朝日新聞」 7.17)

사상 최저 투표율  
을 기록한 參議員  
선거는 일본 국면  
의 정치권에 대한  
경고

### 現 정권에 대한 國民的 警告

#### ○ 政治 全般에 대한 絶望感의 표출

- 과반수 이상이 기권한 史上最低 투표율을 日本政治  
전반에 관한 國民的 警告로 받아들여야 함
  - 與野 색깔 구분이 불가능하고, 정책 변화 없는 빈  
번한 정권 교체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

#### ○ 現 정부의 危機管理 能力에 대한 失望

- 연립 여당의 패배는 고베 大地震, 지하철 毒가스 사  
건, 不況의 長期化 등에 대한 對應 能力 不足이 가장  
큰 원인임

#### ○ 衆議院 解散의 필요성 高潮

- 시급한 불황 대응책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衆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朝日新聞」 7.25)